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5차 세션, 성경 이야기 속의 계시록, 선택된 텍스트 속의 계시록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성경 이야기 속의 계시록, 선택된 텍스트 속의 계시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당신의 아들 과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계시라는 개념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알기 쉬운 사람과 알기 쉬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은 알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도권을 잡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는 계시하는 신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들 안팎으로. 그는 그가 만든 세상에서 우리 밖에서 자신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보고 인도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그는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각자에게 양심을 줍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행합니다. 그는 때때로 그의 말씀에서 기적을 행하여 그의 백성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인간보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채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신을 완벽하게 계시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말씀과 행위로 신을 알립니다. 그의 행위는 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약속된 자이자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다른 누구와도 달리 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드러내어 신은 그를 말씀, 신의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이야기 속의 신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창조, 특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그가 만든 아름다운 동산에서 자신의 권능, 지혜, 아름다움 등을 계시합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정의를 나타내며, 그들은 창조주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에게 과일, 채소, 곡식을 풍부하게 주시면서 섭리에서 자신의 관대함과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전에 자신을 알려 주셨는데,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에서도 알려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받습니다.

그들은 또한 에덴동산에 있는 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원래 계시는 관계적입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는데, 그들은 그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타락은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은 것으로 예시됩니다. 둘째, 깨진 관계의 결과로 하나님의 통일된 계시는 이제 조각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첫 번째 쌍에게 외부와 내부에서, 역사와 말씀과 현존에서 그에 대한 지식을 폭격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대한 죄의 영향으로 인해 그러한 계시는 이제 그들의 흐린 시야에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많은 아이디어에 도움이 된 그의 미공개 체계 신학 노트에 대해 Richard Gaffin Jr. 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의 원래 통일성을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신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풀을 더 푸르고 하늘을 더 파랗게 지각하게 합니다 . 우리는 양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일합니다(로마서 215장). 우리는 삶과 미래를 신의 섭리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하나의 귀중한 진주, 값진 진주로 여깁니다(마태복음 11:46). 우리는 그의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시편 119편 11절). 우리의 미래 부활과 새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일된 계시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사실, 타락 전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물과 온전해진 양심과 영원한 미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성령과 성육신하신 아들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살아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그러나 보라, 나는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으며, 나는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쥐고 있다, 요한계시록 1:17, 18. 선택된 구절에서의 계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 계시와, 특정 장소에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래 구절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가 재앙과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사이자 구원자로 나타내시며 거짓 신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 계시로 인도하시며,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믿음의 겸손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명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주는 이, 즉 진리이자 사람인 것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자신의 경전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계시를 주시는 반면, 그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여하는 성육신한 아들을 통해 신약의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며, 자유, 생명,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빨리 순종하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절에는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5절이 포함되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탈출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땅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1~4, 26).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라오는 완강히 거부하며, 출애굽기 5:2에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놓아줄 만큼 주님이 누구이신가?라고 거만하게 묻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를 오만하게 증가시킵니다(5장 4절~20절).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파라오의 무지함을 바로잡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6:6). 나는 너희를 이집트인의 무거운 짐에서 인도해 내고, 너희를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고, 팔을 뻗고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출애굽기 6장 6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 열 가지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7:14에서 12:32까지에서 보고,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임을 계시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7:5에서 봅니다. 내가 이집트에 손을 뻗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해 낼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인 줄 알 것이다. 7:17.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에 있는 물을 치면 피로 변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예가 10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이고 네 아들과 네 손자의 귀에 내가 애굽인들에게 어떻게 엄하게 행하였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표적을 행하였는지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소유하신 것,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절반의 재앙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이집트,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며 그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1:4~7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위협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4. 자정 무렵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의 모든 만아들이 죽을 것이요,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만아들부터, 멧돌 뒤에 있는 여종의 만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만아들까지 죽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에게도 개 한 마리도 으르렁거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는 주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셨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와우. 파라오의 완강한 저항은 열 번째 재앙으로 이어졌고, 파라오의 아들을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만아들이 죽었습니다(12:29). 자정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만아들을 치셨습니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만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포로의 만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만아들까지 모두 치셨습니다.

하느님은 순종적으로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은혜롭게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장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이스라엘의 집을 지나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주님께 드리는 연례 축제로 기념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만, 그는 재빨리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맹렬히 쫓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강력하게 여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따라오자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 위에 물을 단으시고 그들의 기병을 멸하셨습니다. 14:28, 물이 돌아와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온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을 덮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탈출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찬양하듯이, 주요 역사적 사건이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주요 수단입니다. 탈출에서 하나님은 그의 적들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탈출기에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전달합니다. 야훼, 언약의 주님. 그는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충실하게 지냅니다. 3장과 4장에서 그는 국가, 지도자, 거짓 신, 심지어 바다에 대해서도 강력합니다

출애굽기 9:16과 11:9에서 그는 생명과 죽음의 주님입니다. 출애굽기 12:29-32에서 출애굽기는 특별 계시로, 야훼와 같은 분은 없으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위엄 있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전사, 구속주, 영원한 왕이시며, 구원하기에 강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참조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 거짓 신, 심지어 바다에 대해서도 강력합니다. 9:16과 11:9. 모세의 노래는 우리의 주의를 끌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탈출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말씀과 행위가 어떻게 함께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행위는 강력한 계시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오, 야훼가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허,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적어도 지금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강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식의.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으로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 셨 도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니 그는 나의 구원이 되셨고 이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그를 찬양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를 높일 것이다. 주님은 전쟁의 분이시다. 주님은 그의 이름이다.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의 택한 관리들은 홍해에 가라앉았습니다. 홍수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은 권능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은 적을 산산이 부수십니다. 당신의 위엄의 위대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보내시어, 그것은 그들을 짚처럼 삼켜버리십니다. 당신의 코의 바람에, 물이 쌓였습니다.

홍수가 쌓여서 일어났고,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응고되었다. 원수가 말했다, 내가 쫓아가겠다.

나는 따라잡을 것이다. 나는 약탈하기 위해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은 그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칼을 뽑을 것이다. 내 손이 그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당신은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 속에서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함에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행위에 두려우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당신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오른손을 뺐으셨습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블레셋 주민들은 격노에 사로잡혔고, 이제 에돔의 수장들은 당황하고, 모압의 지도자들은 떨림에 사로잡혔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의 팔의 위대함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에게 돌과 같습니다. 오 주님, 지나가십시오.

당신이 사신 지나가는 백성에게. 당신은 그들을 데려와 당신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이 거처로 만드신 곳입니다.

오 주여, 당신의 손이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미리암의 노래는 " 주님께 노래하라 ,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과 그 기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놀라운 구절에 대한 성경적 음파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매우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십니다. 맥락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큰 권능을 행했던 도시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코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만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의 일들이 두로 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베옷과 재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 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딜 만하리라 .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이지겠느냐? 네가 하데스로 내려갈 것이다.

만일 네게 행한 권능의 일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네 것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진 구절은 마태복음 11:25~27이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은혜로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고, 아들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외에는 없고, 아들을 아는 사람은 아들 외에는 없고, 아들이 계시하고자 택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계시록이라는 주제를 알려주십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갈릴리 도시에서 회개가 부족한 것을 비난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읽은 구절들로 경배와 깊은 통찰력으로 터져나오셨습니다.

삼위일체께서 계시하시는 사역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 당신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운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는 계시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들도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27절.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 아들은 또한 계시록의 위대한 주제입니다(누가복음 24:27).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시작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령도 계시록에 관여합니다(누가복음 10:21). 같은 시간에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같은 에피소드를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그 서문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계시록에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록의 삼위일체적 성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이 또한 개인적임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1:27).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5절. 더욱이, 계시는 주권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에 있어서 주권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아들이 그를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를 효과적으로 만드십니다.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자에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계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15. 또한 기쁨은 계시록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 구절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구절, 물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한 세 번째 측심은 히브리서 1:1과 2입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이 어떻게 와서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특히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1, 2.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이며, 그는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지탱합니다. 죄를 정결케 한 후, 그는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오른편에 앉았으며,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었고, 그가 상속받은 이름은 그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과 신약을 강력하게 비교합니다.

근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유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근본적인 유사성이 하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은 이 마지막 날에 대조됩니다. 오래전에,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 구약 계시록을 받은 사람들,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과 사도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안에서 신약 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그것이 구약성경의 설명입니다.

신약은 그의 아들에 의해, 또한 선지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의 아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아들 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의 중보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의 이쪽을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말씀이 이중 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필립 휴즈와 FF 브루스,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한 다른 주석가들이 보여주듯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래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아들 에 의해 . 구약과 신약 계시록의 근본적인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약 사람들과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도들의 글을 통해 우리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이점이 있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유사점은 굉장합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과 신약의 계시록을 비교하면서, 그는 네 가지 구별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보았듯이 타이밍, 청중, 중재자, 방식을 구별합니다.

타이밍과 관련하여 그는 오래전과 이 마지막 날을 대조합니다. 구약은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것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게 합니다.

구약성서는 마지막 날들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마지막 날들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시간입니다.

저자는 청중을 대조합니다. 구약 계시록은 조상, 족장,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왔습니다. 신약 계시록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사는 우리에게 옵니다.

계시록의 중보자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전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이제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신약 계시록의 중보자이십니다.

네 번째 대조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신약 계시는 아들을 통해 왔습니다 .

그러한 모든 계시는 SON 하이픈 계시입니다. 아들의 계시입니다. 영원한 아들은 육신이 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14.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후, 그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어 그들에게 많은 진리를 상기시키고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이행합니다.

요한복음 14:25-26. 요한복음 15:26. 요한복음 16:13-15.

사도행전 1:1. 하늘에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신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타락 전과 타락 후입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

가을은 모든 것을 바꾼다. 성경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근본적인 구분은 바로 여기 히브리서 1:1과 2에 있다. 구약과 신약. 야고보서 1:18~25는

우리가 물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측량을 계속하는 마지막 구절이다. 특히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신에 대한 측량이다.

야고보서 1:1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일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아십시오.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는 더디 하라.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만연한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보고 떠나가서 자기가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이므로, 그 행함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야고보는 계시를 진리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1:18.

심어진 말씀, 21절. 말씀, 22-23절. 완전한 율법, 25절.

자유법, 25절. 이 서신의 후반부에서 야고보는 또한 왕의 법을 언급합니다, 2:8. 율법, 2:9-11. 그리고 성경, 2:8, 2:23, 4:5. 그 과정에서 야고보는 율법이 통일체이며, 입법자의 뜻을 전달하며,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2:8-13, 4:11, 12. 야고보는 아브라함, 라합, 엘리야, 선지자, 욥,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신명기와 같은 구약성경 자료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합하여 그렇게 합니다.

Christopher Morgan의 A Theology of James, Wisdom for God's People, PNR Publishing을 참조하세요. 우리가 읽은 구절인 야고보서 1:18-25에서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 쓰면서 말씀을 진리와 연관시켰는데, 이는 말씀을 진리로 특징지어지고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야고보서 1:18.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18절.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23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죄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대조합니다. 야고보서 1:13-18. 죄를 낳는 욕망과 대조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신자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낳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기능하며(16-18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21절). 이 말씀은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과 율법을 어느 정도 바꿔 사용하며, 두 용어 모두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핵심 윤리적 가르침, 그리고 예수의 복음과 가르침에 나타난 새 언약의 약속을 광범위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1:19-25에서 말씀과 율법을 동의어로 취급하는데, 이는 말씀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는 또한 완전한 자유의 율법입니다(25절). 또한 2:12를 참조하세요.

시편 19편과 연속적으로 야고보는 율법의 완벽함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삶, 지혜, 기쁨, 순수함, 깨끗함, 의로움, 보상이라는 관련 주제도 강조합니다. 완벽한 율법은 자유를 향한 수단이며, 삶, 번영, 거룩함, 봉사를 증진합니다. 말씀은 또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믿는 자들은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 6:1-9를 보십시오. 죄를 내려놓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고, 듣고 행하십시오. 야고보서 1:19-25. 말씀을 행하는 믿는 자들은 그 행함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중간, 끝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18-25절). 여정의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계시의 의미, 계시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성경 이야기 속의 계시록, 선택된 텍스트 속의 계시록입니다.